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Reading the Images with Tom Wright



강연: 톰 라이트

번역: 조해강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Reading the Images with Tom Wright

목차

책 소개 / 2

1.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본질 / 4
2.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 17
3. 바벨론, 혼돈의 도시 / 30
4. 죽음, 그걸로 끝인가? / 43
5. 보혈, 생명의 논리 / 55
6. 씨앗, 새 창조의 원리 / 64
7. 십자가의 여러 의미 / 78
8. 빛 - 소명의 구체화 / 97
9. 언약 - 주님께 연합하여 사는 삶 / 108
10. 떡 - 하나님의 임재 / 123
11. 불 - 정결하게 하는 것 / 133

책 소개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Tom Wright, 1948 ~)는 현재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8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으며, 그 중에 신약성경 전체를 주석한 모든 이들을 위한 에브리원 주석은 널리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로서 톰 라이트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맥길 대학교에서 신약성서학을 가르쳤고, 목회자로서는 영국 더럼의 주교를 역임했습니다. 2010년 주교직 사임 후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교수로 신약성서학과 초기 기독교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지난 2018년 2월에 톰 라이트는 영국의 유서 깊은 기포드 강연(Gifford Lectures)의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이 강연은 칼 바르트나 폴 틸리히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친 자리

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참사회원 신학자(Canon Theologian)로도 활동했던 그는, 학문적 저술과 대중적 저술 모두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21세기의 C. S. 루이스’라고도 불리며 가장 주목받는 변증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가을에 톰 라이트는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Reading the Images with Tom Wright)라는 주제로 짧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11개의 키워드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 글은 그 영상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각 주제를 다룬 글에는 해당 영상의 링크가 제공됩니다. 톰 라이트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조해강 목사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01.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본질

영상: <https://youtu.be/5TNbZ5lPhOA?feature=shared>

주요 내용: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연결하여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표현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관통합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미지를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런던이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런던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나라의 수도 말입니다. 저는 종종 길을 잘못 들기도 했습니다. 20대가 되었을 때에도 저는 주로 도서관에 다니거나 어떤 극장에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동할 때면 기차를 탔고 기차역에서 나와서 지하도를 지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런던이 도시로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사는 곳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마침내 우리 가족이 런던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50대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기뻐던 일은 걸어서 런던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런던의 거리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그 거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 여기로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저리로 가면 저기가 나오는구나!’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제가 생각해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그 이유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마치 저에게 런던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여기도 조금 알고 저기도 조금 압니다. 어떤 부분은 한 장 전체를 알고 다른 곳은 한두 구절 정도 압니다. 하지만 이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진면목은 그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될 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암시를 주셨고 때로는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모두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과 다른 서신들을 보면 성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로 귀결됩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 시리즈를 통하여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주제가 성경을 관통하여 그 모든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게 되고 여기저기 조금 아는 데서 향상될 것입니다.

이미지, 형상

가장 먼저 살펴볼 이미지는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이야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여기에 나오는 '형상'은 무슨 뜻일까요? 초기 교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 철학자들이 주로 다루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자 한 것은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나의 일부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상력 또는 나의 기억 또는 나의 의지

같은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형상은 성전에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핵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엮인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 곧 그 중심에 형상(이미지)을 두셨습니다. 고대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 형상 즉 성전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성전은 신의 거주지로서 거룩한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성전은 마을 바깥에 별도로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세계를 압축해 놓은 모형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전에는 형상이 있어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고, 그 형상을 통해 세상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로 그곳 성전

에, 즉 주님이 늘 바라시던 처소에 형상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남성과 여성으로 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통치자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동물과 새들과 같은 것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8편에 잘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약성경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형상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방인들의 형상을 비난할 때입니다. 형상을 깎아서 만들어 그들은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형상의 재료는 금이나 은, 돌이나 진귀한 금속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형상에 대하여 말할 때는 종종 그런 형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형상이든지 광야의 성막에 있게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다. 그 이유는 오직 숨쉬며 살아있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참 되
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고
생명이 없는 형상은 죽은 신을 나타내며 그런 신은 거짓이며 가
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에서는 인간이 이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했
습니다. 그 사람은 신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왕은 전능한 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계급이나 지
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기울어진 거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 일에 대하여 저는 그것을 ‘기울어
진 거울’(an angled mirror) 모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울
어진 거울은 하나님을 반사하여 세상에 보여주며, 동시에 세상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여 드립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함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성경 이야기가 형상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런 맥락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압니다. 왕 같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을 의미하며,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피조물의 찬양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 돌려드리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성막에서나 성전에서나 그 안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제 왕은 제사장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유일하시고 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왕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 왕의 신상

이제 우리는 이 주제 ‘왕 같은 제사장’이 신약성경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약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모든 일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고대 역사를 공부할 때 여기 옥스퍼드에서 학부생이었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있던 곳 근처에 있는 큰 박물관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황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모습의 동상이 전시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상에 달린 라벨을 보니 어떤 동상은 스페인에서 온 것이었고, 시리아나 이집트에서 온 것들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져온 로마 황제의 동상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져온 동상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황제는 당시에는 가이사(Caesar)였는데요, 그는 자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속주의 여러 곳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속주민들에게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통치권을 더 넓은 세계로 투사하여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가 한 일은 마치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을 흉내 내는 패러디와 같습니다.

왕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 동전

그런 일은 동전에도 일어납니다. 당시의 동전에는 가이사가 새겨져 있었고 세계 왕들과 통치자들의 얼굴도 동전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동전에는 보통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는 바울의 시대에 제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화폐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이사를 숭배하는 셈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께서도 동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보여드린 동전은 세금을 받칠 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전에 새겨진 글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그 동전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대제사장이다’라고 써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놀랍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들고 계시던 동전에 그런 내용이 새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를 달리 말하면, ‘너희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받쳐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물론 그 말씀에는 물론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형상’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은 기름부음을 받아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몇몇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주님은 진정으로 인간이시며, 동시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그 안에 구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 세 구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충만이 기쁨으로 깃들여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상입니다. 그것은 돌로 깎아서 만든 로마의 속주에서 발견된 형상들과 다릅니다. 예수님 자신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시

며 그리고 세상의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 드리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자기 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그런 방식으로 계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창조주의 현존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형상을 닮는다는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우리

그 결과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인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조각상의 살아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 있는 유일

한 조각상이 되어 더 넓은 세상에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가 받은 소명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존재와 행동으로 예수님이 독특하게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수놓아져 있으며 또한 창세기 전체와 출애굽기 이야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세상에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통치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끝〉.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02.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영상: <https://youtu.be/UqLfrJloM68?feature=shared>

주요 내용: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성전은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가리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이미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어떤 주제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들 이미지 각각을 면

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큰 이야기에 연결시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미지를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당 같은 것인가?

제가 처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고 지도나 도표 등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성전이 큰 예배당 건물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배당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큰 길가에 서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거나 음악이 공연됩니다.

성전은 공동체의 중심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거대한 복합단지였습니다. 그 복합단지의 한 곳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단지 하나의 종교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아, 여기 성전이 있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자체는

일종의 확장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전인데 그 주변에 작은 공동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세계의 사원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이 어떤 신이든지 여러분은 그 신을 예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전체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의 한 부분으로서 신성한 건물도 아닙니다. 성전은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제사의 의미는 신에게 대한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칠 때 그것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배의 자리였고 공동체의 자리였는데 그 의미는,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성전의 일반적인 의미였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원형

그러면 그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전통 중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시가 없었고 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위해 특정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이 새로운 곳으로 오라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의 핵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에 이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피조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진정한 인간입니다.

노아 방주도 성전이다!

문제는 인간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걸로 너희는 끝장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게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와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가 ‘성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작은 방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은 선물은 물 위에 떠 있는데 사람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임무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성전과 야곱의 사닥다리

우리는 바벨탑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만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이 형 에세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갈 때 갑자기 또 다른 성전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의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보시며 그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장차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이미지는 계속하여 앞을 가리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면 이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실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매우 심각한 역기능적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성막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양이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절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실제로 창세기 1장의 시작 부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절정은 성막의 건축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의 작은 모델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새로운 창조를 보여줍니다. 성막의 장막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창조입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성막의 기능은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백성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것 역시 이스라엘이 자기 길을 가면서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 자신이 성막에서 그의 백성 가운데 살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들려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성소, 즉 아직은 성막으로서 이동용 천막인데요, 그 성소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

그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은 십계명이 들어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때 누군가는 기발한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져와 전투에 가져가면 승리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법궤가 그릇되게 사용되고 오해되고 비록 값싼 속임수로 취급될 때에도 그것은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신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그 앞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법궤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법궤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과 이스라엘의 왕들

그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인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성막이 있었던 것을 대체하여 이제는 영구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겠지만 이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곳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전적으로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성전을 계획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건축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이상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즉 왕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이 오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는 경우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경고는 아래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와 성전이 있도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또는 기록함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전을 부수고 멸망당하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파멸시키도록 허락하실 것인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약 70년 정도였고요,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서 그 시대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전 파괴와 하나님의 임재

여기서 난해한 점은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다시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영광스러운 그림이 묘사되는데 그것은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거기 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

은 광야의 성막의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신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마침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즉, 일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예수 시대까지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특정한 방식으로 생활하시고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사실은, 자신이 육체로 오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전 운동

그 분은 마태가 말했듯이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장소는 그와 성전이 함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대 민족이 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데 한번 더 실패했기 때

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내 왕국 예언에서 선포한 평화의 길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으니 성전이 헐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너희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사야, 말라기의 예언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특히 그의 새로운 성전 운동을 시작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이 주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거하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교회와 성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 있는 성전이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성전으로서 교회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단지 잡다한 예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 주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과 지혜가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함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광야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행하시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전

요한계시록 끝 부분에 나오는 새 창조의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자신도 계시고 어린양이신 예수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미래를 가리키는 이정표로서 성전이 하던 역할이 이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성경적 주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주는 방식입니다.

〈끝〉.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03.

바벨론, 혼돈의 도시

영상: https://youtu.be/VH6iw8_G8f8?feature=shared

주요 내용: 바벨탑과 바벨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어떤 의미로 나타날까요? 왜 사도들은 로마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을까요? 성도들이 대적해야 할 하나님의 원수인 바벨론에 대하여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어떤 주제를 성경 전반에 걸쳐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각각의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전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본능,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비극적인 일이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부터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가인은 그 일 이후로 에덴동산에서 나가야 했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에게는 어떤 본능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한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뱃속 깊이 알고 있는 것은 무릇 인간이란 공동체를 건설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머지않아 악몽으로 바뀝니다.

바벨탑, 인간의 오만함

창세기 이야기를 따라 우리가 읽다 보면, 인간의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문화가 꽃피고 인간은 다양한 일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인간은 마침내 바벨탑을 세웁니다. 거기서 인간은 오만함으로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가인이 꿈꾸던 인간 사회였고 가인의 꿈이 논리적으로 확장된 결과물입니다. 가인은 살인자였으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인물인데 그런 삶의 방식이 자라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고 온갖 종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을 번성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으며 그렇게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이 상징하는 바는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개입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탑은 조그맣게 쌓은 건물일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말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민족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보다 더 나은 꾀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나누셨습

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그 일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바벨탑과 반대가 되는 삶

여기에는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바벨탑은 인간의 오만함을 뽑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Self-centered) 문화입니다. 즉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 중요하며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그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것은 은총이 필요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인간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려는 것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대조는 성경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져서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나며 신약성경에도 이런 대조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장하여 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씨름했던 현실은, 그들이 작은 나라로서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시리아(아람)가 있었고 바벨론은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식의 삶

성경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바벨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벨에서 바벨론이 유래했습니다. 이사야 13장과 14장을 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바벨론을 쳐서 예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바벨탑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하며 마귀적이며 사탄을 추종합니다. 바벨론이 애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바벨론식의 삶을 따르면 인간은 결국 오만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모든 종류의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과오, 바벨론에 굴복함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성경 이야기에 소개됩니다. 이사야 3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는 반드시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후에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방문단은 바벨론 왕이 보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이 오다니요!’ 히스기야는 시리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은 좀 더 멀리서 시리아와 마주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바벨론이 자기 편이 될지도 모른다고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 사절단에게 왕궁을 구석구석 보여주고 왕국의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왔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한다면 당신은 바벨론을 의지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벨론 식의 삶은 모든 사람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재위 중일 때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바벨론 왕이 자기 군대를 보내서 이 나라의 모든 보물을 휩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왕궁에 있던 성전에 있든지 가리지 않고 그것을 바벨론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입니다.” 이 대목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막힌 장면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삶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인간이 오만하게 지은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바로 그 시스템은 바벨탑을 쌓아 모든 시대(시간)와 모든 지역(장소)에 세우려 할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사는 성도들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비극은 유대 민족이 겪은 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슬피 울었다!” 이것은 시편 137 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시온을 생각할 때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 늘 우리를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보아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는 좋은 음악이 있어서 너희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다던데... 우리를 위하여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라!” “우리가 어떻게 야훼께 드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낯선 땅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회상하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에 내가 속하였도다! 바벨론은 아니로다!” 이 두 가지 대조를 보면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인간의 오만과 악덕과 폭력이 지배하는 곳이며 그곳에서 오만한 자들이 인간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대비됩니다. 예루살렘은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자신이 자유를 얻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가 애도하는 것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그 패러디는 진짜를 흉내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얻으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 분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나 자신을 위해서 얻고자 애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도 바벨론이다!

이런 패러디는 신약성경에서도 반복됩니다. 바벨론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분명 로마를 상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강대국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그 후 몇 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은어를 사용하여 교회가 바벨론에 있다고 말합니다(베드로전서 5:13). 물론 그 말의 의미는 로마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 그 자체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만 인간 사회가 어떻게 악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긁어모으려고 하고 모든 물건과 모든 비단과 금과 은은 물론 모든 노예들과 세상에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로마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백성이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다른 새 예루살렘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런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의 대문은 밤낮으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보물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곳에서 나무들은 생명수의 강가에서 자라나는데 요한계시록 21 장과 22장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나무의 잎사귀는 세상을 치료하는 약제가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그림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을 대적하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은 기독교회가 은연중에 비판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오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실제 건축물을 세우기도 하고 정치-사회적인 구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충족을 확보하고자 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하며 그 누구도 개의치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경향을 포착하는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간파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라고 부르는 이런 것이나 영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은 한쪽으로 물러나서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운영하며 우리가 국가나 문화를 건설합니다. 이런 일에 종교나 영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건축자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를 모방한 것일 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며 그것은 인간을 만개하고 번영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처음의 계획을 이루게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루살렘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제국을 세운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보고 왠지 제국을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악마화하여 거기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벨론의 유혹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가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지 방임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는 바는, 기독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비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권세를 독점하려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도 포함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있어야 해. 그것은 우리 공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손에 넣으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기독교회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나아지게 해보자!”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점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포로생활과 회복으로 나타났는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세우는 도시가 그것이 문자적인 것이든 은유적인 것이든 하나의 모델이 되어 다가올 예루살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혜를 구

해야 합니다. 그곳은 평화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생명이 가득
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끝〉.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04.

죽음, 그걸로 끝인가?

영상: <https://youtu.be/p9opVbtl8xA?feature=shared>

주요 내용: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설명 하나요? 죽은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부활에 대하여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어떤 주제를 나타내며 성경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전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

야기에서 이미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죽음에 대한 생각, 특히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디딤돌로서 천국이나 그 어디든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계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약성경을 보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단지 관문으로서 그 문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장례식에 처음 간 것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매우 자제하면서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돌아가신 분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약성경에서 죽음은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당할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창조의 모든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혼돈이며 부패되어 없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부패를 용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패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요,’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서 우리

는 나중에 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는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란 선한 창조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며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

최초의 피조세계는 선한 것이지만 영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에 상징과 표지를 넣어두심으로써 그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

하지만 인간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악관을 먹었는데 그날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히브리어 관용구를 오해한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가 의미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 24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죽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음에 서명한 것과 같다’는 뜻이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마치 거대한 종이 울리듯이 그 5장 전체에 걸쳐서 아무개도 이런 일을 하고 아무개는 저런 일을 했으며 그리고 아무개도 죽고 아무개도 죽고 또 아무개도 죽었다고 들려줍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들려줍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의 저주를 누그러뜨릴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저주이며 죽음은 선하게 창조된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 1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도 언약을 맺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입니다.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올 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으리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임으로써 어떤 거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 2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 성공회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 백 년 전에 말입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옆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의 그 신학자는 그 설교의 다음 문단에서 이어서 설명하기를, ‘여러분이 때

때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조금은 실제로 끔찍한 일이며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파멸이며 모든 선한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쉬운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

구약성경을 보면 죽음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시편 16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점을 지목하여 시편 16편을 인용하였으며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언젠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신약성경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전혀 지지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신약성경은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사망이 멸망당하는 세상입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은 호세아 6장과 에스겔 37장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12장입니다. 이 본문은 나중에 랍비들이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 가장 즐겨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지만 주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이며 그것이 약속이기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정복될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

이 모든 이야기의 기초에 자리 잡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주시라는 생각을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엉망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며 자연의 힘이 저절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전에는 좋았

지만 이제는 어떤 좋은 것도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부활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주시라면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심판주시라면, 그러면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죽음은 패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는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선구자가 되셔서 치료와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짧지만 강력한 공생애 기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방식으로서 생명에 대한 긍정이며 사망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죽음이 잔인하고 추악하고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능히 다루실 수 있을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죽음이 공동체와 가족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를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일이 다가가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 했으리이다.’ 예수께서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이는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 살아와서 여기서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부활은 죽음이 가져오는 파멸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용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용서는 서로 함께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

노라!’ ‘내가 만물을 바로잡으리라!’

세례와 죽음

또한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경험하는 것으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으로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의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 이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 기다림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마침내 누릴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알 듯이 여러분이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

과 함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육체적 죽음뿐 일 때 육체적 죽음은 다정한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죽음이 우리를 비참함에서 건져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어떤 분 곁에 앉아 있었을 때 죽음은 복된 쉬이며 일종의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에 멸망 받을 원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28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죽음은 별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은 극복되어야 하며 우리는 사망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패배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사망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패배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현재 이미 시작된 생명의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끝〉.

톰 라이트와 함께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05.

보혈, 생명의 논리

영상: <https://youtu.be/rk78sgPb5nQ?feature=shared>

주요 내용: 구약성경에 나오는 피의 제사에 대한 바른 설명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담긴 논리에 대하여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떤 주제를 나타내며 성경 이야기를 관통합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를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전체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레위기의 가치와 의미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으로 읽어보면, 모세오경은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인데요, 그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서 세 번째 책 레위기로 바뀔 때입니다. 출애굽기의 말미를 보면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막이 건축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주할 새로운 상황은 그 다음에 나오는 책 레위기에서 나타납니다. 레위기는 율법 모음집으로서 그 내용은 성막을 관리하는 규정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의 기능은 보건과 안전을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분이시며 또한 신화적인 존재와도 다른 분이시라 우리 곁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기록하

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온통 허물과 죄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그곳에는 죄와 죽음과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막을 정결하게 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 있습니다.

짐승을 바치는 희생제사의 바른 의미

이것은 기존의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동물로부터 피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있는 존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다가 죽

으면 안 되겠기에 그 대신에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동물이 죽게 되고 그들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모든 드라마와 그 모든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백성과 성막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이것들을 깨끗하게 할까요? 그 중심 대답은 피입니다. 희생제물로 받쳐진 짐승의 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 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혈의 논리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로 상징되는데 그 피가 모든 것을 닦아내고 정결하게 하여 사망의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사망의 더러움과 함께 있는 죄의 더러움이 씻겨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보혈의 논리입니다.

니다.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운반하며 그러므로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그 피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심으로써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은 하나님이 너희와 맺는 것이니라.”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로 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그들의 생명이 됩니다. 그 피가 이것을 상징하고 가리키는 표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두 번 언급되는데요 구약성경에도 있고 신약성경에도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 한 번 나오구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우리가 피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성만찬의 피

우리가 보혈의 은총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성경의 본문을 훌쩍 뛰어넘어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피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든 피를 먹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볼 때 놀라게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빵을 떼어 주시면서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구절 중의 하나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23장 17절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저자는 간략하게 들려줍니다. 그 특별히 중요한 일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했던 일로써 그 때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지내던 초창기였습니다. 한번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마실 물을 좀 구해오면 좋겠다. 저기 베들레헴에 우물이 있지 않느냐?” 그때 다윗에게 있는 용사 중에 세 사람이 일어나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군대의 포위를 뚫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가서 다윗에게 바칠 물을 한잔 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블레셋 군대의 포위를 뚫고 와서 물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땅에 쏟아 버리며 말하기를, “나는 결코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실 수 없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물을 구하러 다녀오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이 거절한 것은 잃을지도 모르는 생명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사들은 붙들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표현한 말은 그들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그 물 한잔을 마시는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비록 자기가 물을 좀 떠 달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의 유익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가 저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살을 먹으라 하셨고 특히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명이며 또한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씻김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몸을 제공할 것인데 그 몸은 죽음을 통과하여 저 너머의 새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주님의 생명과 죽음을 받아들여 치료받고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열쇠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그것은 레위기 17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혈은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생명이며 지금은 피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진 것은 문자 그대로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며 고침 받고 부활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끝〉.

톰 라이트와 함께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06

씨앗, 새 창조의 원리

영상: <https://youtu.be/EiqKyeuhnE0?feature=shared>

주요 내용: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씨앗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에 대한 주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로서 소개하심으로 씨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씨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씨에 대한 성경의 은유들과 의미들에 대하여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떤 주제를 나타내며 성경 이야기를 관통합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를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전체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

내야 합니다.

씨, 지속가능한 창조의 원리

성경의 첫머리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이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식물에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 때문에 식물들은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채소와 씨 가진 식물을 내어라. 열매 맺는 각종 나무들도 땅에서 자라나라. 그 열매에는 씨앗이 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작가는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땅은 야채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식물을 내라. 온갖 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고 그 안에 씨가 있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의 작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제공하신 것은 생명이 지속 가능하도록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다른 짐승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시고 두신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을 채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진 피조세계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리였습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서양 세계에서 종종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하여 상상할 때 사람들은 천국이 구만리 창천에 멀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땅에 있으며 곧 하늘 아래 이곳에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면 세상에 잠깐 내려오셔서 순식간에 일을 보고 떠나신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출처는 아마 18세기의 이신론(理神論, Deism)이거나 신쾌락주의(Neo-

Epicureanism)일 것입니다. 세상이 하늘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바로 그 방식은, 새로운 것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씨앗의 원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성경 설명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씨앗(제라, zera)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입니다. 그리스 성경인 70인역(LXX)은 스페르마(sperma, 씨앗)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창세기에서 ‘자손’이라는 말로 번역되거나 때로는 ‘가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렇게 씨앗이라는 말은 그 두 가지로 번역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칠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같이 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자손’은 바로 ‘씨앗’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즉,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과 22장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중지된 까닭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부르셔서 없애려고 하신 것은 아담의 죄와 그 결과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리로서 구약성경을 읽을 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점은 신약성경을 읽을 때도 중요한데요, 신약성경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아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떤 백성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씨앗이며 자손입니다. 바로 그들 가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씨

아담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성경은 모든 피조물의 문제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새롭게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소명에도 드러납니다. 다윗 왕은 처음에는 선택을 받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받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기름부으실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라고

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리를 잡고 자신의 왕위를 든든하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영구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전’이라는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언급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생각 말입니다. 왕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분이 아닙니다. 왕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었습니다. 왕은 너무 많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 사람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번역은 ‘내가 너의 씨를 일으키리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아들이나 자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영어 번역본은 그렇게 아들이나 자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 ‘네 씨로 말미암아’는 신약성경에 명백하게 인용된 구절입니다. 즉, 예수에 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신 분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씨를 일으키리라!’라는 본문을 초기교회가 읽으면서 그 안에 예언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손의 계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누구도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말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지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바라던 다윗 계보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그 자체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내가 네 씨를 일으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예수께서 다윗의 진정한 씨이심을 기뻐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이 확장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도 온 세계로 확장됩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소개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유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 언약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본래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윗의 통치를 묘사한 것입니다. 장차 마침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분의 나라가 온 세계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땅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과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거룩한 씨, 남은 자

그런데 씨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8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영영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리라’(10절~11절).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 즉, 씨를 주시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면, 이 땅을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자니라. 그 땅은 생육하고 다시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로 말미암아 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그 비유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를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룩한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나무들이 베임을 당하고 불에 탈지라도 이 땅에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니라.’ 하지만 거룩한 씨도 타락했습니다. 에스라 9장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면 거룩한 씨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패해졌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사오나 우리는 영망으로 살았습니다(11절).’ 그들이 사용한 이 단어, 씨는 약속의 전달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주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윗의 진정한 씨를 보내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였고 다윗의 씨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리라 하시던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린다는 그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 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사야 자신도 사실은 과거의 창세기 말씀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새로운 창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수수께끼처럼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도전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일을 하신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씨앗처럼 다시 파종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하신 대로 늘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대부분 헛되게 허비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듣고 또 들었지만 결국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였습니까? 그 씨앗은 자라고 거대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크게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주님이 많은 무리를 먹이실 때 그 시작은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했던 그 시험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그것으로 더 많이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C. S. 루이스는 그의 책 '기적'(Miracles, 1947)에서 이 기적은 메시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결실하게 하는 것

입니다.

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씨’이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라면, 즉 다윗의 씨이시라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씨가 됩니다. 그 씨는 진정으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수가 많아 계속해서 많아지고 성장합니다. 그들은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이 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남은 자들이 되어 온 세상에 새로운 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씨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단 하나의 씨를 주시고 그 씨가 자라나 한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는 아브라함

의 씨들이니라. 즉,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번역이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즉, ‘씨’ 라고 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런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러므로 씨에 대한 생각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분명히 단순하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그다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씨에 대한 그런 생각은 창조와 새 창조라는 주제를 전달해주는 주요 매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분명한 표지판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가리키며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복을 주시고 변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

톰 라이트와 함께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07

십자가의 여러 의미

영상: <https://youtu.be/rJBv0pNIKwY?feature=shared>

주요 내용: 잔혹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게 되었을까요?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로 소개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유월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구약성경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여러 의미에 대하여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잔혹한 사형틀인 십자가

주후 1세기에 십자가형은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

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갈릴리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신 곳 어디에서도 십자가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큰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단지 돈을 바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이사가 자기들의 땅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제국은 늘 하던 방식대로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수백 명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도처에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때 로마 공화정 후기였는데요, 노예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노예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서로 떨어진 두 도시 사이에 아마 수마일은 될 텐데요, 십자가가 약 18m 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서 십자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달린 사람들은 절반은 이미 죽었고 절반은 겨우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가련하고 얻어 맞아 만신창이가 된 노예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처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상징이었기에 고대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로마 세계에도 알려졌으며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야만스러운 로마제국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오만함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누구라도 제국에 반대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로마제국이 식민지의 반역자들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주인들이 그 노예들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 형은 그렇게 자주 노예를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다!

기독교에 대해 생각해볼 때 가장 놀라운 점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 이십 년이 못 되어 십자가라는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징이 전에는 그토록 강력한 메시지를 내며 말하기를, ‘야만스러운 제국의 통치가 이처럼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상징이 이제는 더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십자가에 대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려 오신 자리는 인간이 서로에게 최악의 일을 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대신에 새로운 생명 길이 열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신약성경에 두루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이야기에 절정에 해당합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 이르게 합니다. 진실로 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려주는 방식은 구약 성경이 예고한 여러 주제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주제들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기나긴 이야기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특별히 예언서에서 두드러집니다.

십자가는 메시아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십자가의 핵심적인 의미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들려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승리’라는 주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 쪽에 어떤 표시를 매달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 표시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복음서는 어떤 방식으로 들려주는가 하면, 그 표시 십자가는 사실 메시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이교 세계에 대하여 진정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는 언제나 메시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승리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실패한 메시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전체 사건을 들려주는 드라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그리스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좋다,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때를 보여주는 표시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마침내 왔다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변화의 때가 되었다는 표시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이며 세계 만방으로부터 사람들을 모으실 때이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일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저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를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면,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좀 더 살펴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다가왔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의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은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들이 와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상숭배로서 이교세계에 만연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악으로서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런 우상숭배와 죄, 그리고 죽음이 이제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유월절과 십자가의 관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바로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택하신 때는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택하신 것은 바로 이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통치자들에게 맞서는 것이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맞서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바로 거기 죄인의 자리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악인의 자리였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거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라바입니다. 요한이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바라바가 죄를 지었는데 그는 풀려나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여러 번 기록했는데 이는 십자가에 대한 설명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강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는 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요, 그 강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 없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가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는 주제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즉 예수께서는 잔치 자리에 죄인들과 함께 가셨으며 그것은 공생애 동안에 이루어진 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이 자신을 만질 수 있게 하셨으며 예수님도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더럽혀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강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맞이할 운명에 대하여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로마인들이 와서 너희와 너의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앞서 가셔서 그 운명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자주 모으려고 했더냐?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말이다.’ 농장 마당에 불이 나거나 혹은 여우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면 농장 마당에서 암탉은 병아리를 모아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암탉은 죽겠지만 병아리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보다 앞에 나아가셔서 자신의 어깨에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운명은 죄인들이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께서는 악의 권세와 그 결과를 깨뜨리셨습니다. 승리는 바로 대속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공식이며 구원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시다

이 이야기의 각 요점과 복음서가 공통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바는 이 한 구절, 대속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신 채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낙심해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마인들이 그분을 처형했으므로 그 분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실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그가 실패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너희는 정말 어리석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토록 둔하여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구나!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 말이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의 글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 곧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성경 해석학으로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각주를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보기에 누가는 계속하여 어떤 본문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성경의 어떤 주제에 대하여 예수께서 강조하시고 상기시켜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두 제자에게 말할 바로 그 때 말입니다.

대속의 예표, 유다와 베냐민의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본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이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자기 형제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온 것은 곡식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가 요셉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요셉이 말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요셉의 꾀는 형제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한다면 베냐민을 노예가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과거의 상황과 유사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제 아버지는 고령이십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보증하겠다고. 우리 중 한 사람을 당신의 노예로 붙드셔야 한다면 저를 붙잡아 두시고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이처럼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는 바로 그 생각은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자신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임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는 유다 지파 출신이므로 그 분이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구나! 마치 유다처럼 앞으로 나서서 내가 비난을 받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 너 다소 사람 사울은 네가 비록 교회를 받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제 너는 자유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 놀라울 정도로 감동적이고 친밀하며 인간적인 장면이 요셉과 유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나타낸 때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장면은 구약성경 전반에 올려 퍼집니다.

유월절과 십자가

이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그런 주제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심판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고 홍해를 지나서 이집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선별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에서 언급됩니다. 특별히 홍해 이후 광야에서 재앙과 질병이 그 백성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늦을 취하여 뱀의 모양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뱀이 백성들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늦뱀을 장대에 달아 모든 사람이 그 장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뱀에 물린 데서 고침을 받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속해

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표, 다윗의 기도

이처럼 많은 표지와 상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다윗 왕이 겪은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은 축출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윗은 급히 달아났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궁궐로 복귀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시편이 들려줍니다. 시편 22 편과 같은 다른 많은 본문이 그것입니다. 그 시들에서 시인은 어둠 가운데 탄식하다가 구원을 받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당하는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 빛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시들이 많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들려주는 메시아 이야기

이스라엘의 유배와 회복에 이야기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곳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 부분인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낯선 인물인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분은 한편으로 보면 메시아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자신의 팔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십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런 고난이 기록된 곳이 이사야 53장이라면, 이사야 54장은 언약이 갱신된다는 이야기이며, 그리고 이사야 55장은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해봅니다. 예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실 때 두 제자에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것을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길에서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말이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역설적인 변화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끔찍한 실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 역설은 궁극적으로 같은 모순입니다. 십자가라는 이미지는 제국의 잔혹한 힘과 폭력과 오만함을 상징하는 이미지에서 변하여 사랑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20년 동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산상수훈의 백성들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했고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며 용서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다른 뺨을 돌려대 주며 짐을 지고 추가로 더 가줍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혁명이 시작된 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시에 역사의 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중대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가 보여주는 상징은 우리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치유와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려지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톰 라이트와 함께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08

빛 - 소명의 구체화

영상: <https://youtu.be/coE5Sh7XRhc?feature=shared>

주요 내용: 성경 이야기에 두로 나오는 빛의 이미지는 다양합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의 빛과 성도들의 소명에 대한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어떤 주제를 성경 이야기 전체에 걸쳐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이미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미지가 우리를 성경 전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 지어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태초의 말씀과 태초의 빛

요한복음의 서문은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빛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처럼 빛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는 중심 주제가 되어 요한복음의 나머지 이야기에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서문에 나오는 다른 주제와 같이 요한이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동일한 개념으로 다른 장들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서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복음에서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시는 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의 서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두움의 비치매 어두움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기에는 이

미 일종의 역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모습은 두루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도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두움이 빛을 이기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싸움은 빛과 어둠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온 것은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온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창조와 빛

이후에 요한은 주제를 벗어나 다른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요한이 강조해서 말하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 분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중요하십니다. 어둠으로 덮인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지요. 물론 요한복음의 서문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빛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창세기 1장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 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기뻐하 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창조의 시작 부분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첫머리에서 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 리가 알게 되는 것은 빛에 대한 모든 예언과 빛에 대한 상징들이 구약성경에서 언급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요한이 들려줍니다.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빛

출애굽기에서 거대한 어둠이 이집트의 모든 백성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역은 어둠에 덮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빛이라는 주제는 구약성경을 관통하며 이어집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잘 아는 이유는 그것이 제가 다닌 대학의 모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장의 용마루에 두루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천장이 있는 방에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위를 쳐다보았는데 거기에는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메아(Dominus illuminatio mea!)’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구절인데 시편 27편에서 온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정말 많은 구절들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

이제 요한 복음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므로 너의 증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그리고 다음 장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하나의 위대한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 상징에 대하여 복음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는 죄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창조의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선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땅에 침 침과 땅의 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 사람

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나머지는 온통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요한이 이 사건을 예루살렘의 초막절 시기에 배치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절기 가운데서 그 절기는 빛의 절기였으니까요. 다른 절기들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빛을 복음과 관련하여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의 이야기에 이 모든 것이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변화되신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은 요한 복음의 두루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빛이라는 주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신 것은 짧은 순간에 된 것이지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세상의 빛, 성도들

특별히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명을 부여합니다. 그 소명은 그들도 빛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도입부분으로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러므로 빛을 말 아래에 가두지 말라. 그렇게 되면 빛이 비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유대와 갈릴리로부터 와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세상을 위하여 어떤 존재가 되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세상을 위하여 되어야 하는 바로 그런 존재다. 그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빛을 간직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깐 동안은 밝게 빛날 수 있겠지만 그 빛은 곧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

는 이미지는 등대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영국의 북동부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등대는 수마일 밖에서도 보일 만큼 밝았습니다. 그 등대에 가보면 등대 주위로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하여 빛이 비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그 빛 주위로 거울을 설치하는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우쭐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전체가 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빛을 바깥세상으로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신 것은 하지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빛을 바깥세상으로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신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특별히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곧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빛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의 빛,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이 주제에 대하여 특별히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말할 때 빛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은 이사야 49 장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는 것은 너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다. 그렇게 하여 나는 이스라엘 지파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의 영광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자신의 글에서 네 다섯 번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9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공적인 삶의 이력을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재판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아그립바 왕 2세에게 바울이 말한 것은, 바울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상 나라들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빛은 예수께 집중되었습니다. 바울이 말은 사명은 그 빛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모세와 예언자들이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 일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행전 26장 23절입니다.

그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나라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빛을 희미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그 빛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은 그 빛을 발하여 어두움이 있는 그 자리를 비춥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돌이켜 그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빛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주제가 창세기에 두루 펼쳐져 있으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빛이 그 성에 있는데, 그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곳의 빛은 하나님 자신과 어린양이 십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해와 달이 필요치 않는 이유는 빛이 와

서 그들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와 함께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09

언약 - 주님께 연합하여 사는 삶

영상: <https://youtu.be/pPrYmqNwfs4?feature=shared>

주요 내용: 성경 전반에 나오는 다양한 언약들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과 협정

아주 먼 고대에는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떤 왕이나 통치자들이 큰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게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은,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하고 너는 나에게 저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니면 그 나라와 일종의 정치적인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맺게 되는 협정은 그 당사자 간에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포괄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학문적인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필요한 일이겠지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시대에서 우리가 계속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은 언약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백성과 체결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용되어 그 언약에 충실하게 하며, 그리고 역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어 성경을 관통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언약은 국가 간에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체결됩니다. 개인간의 언약 형태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결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혼은 구약성경에서 드러나는 이미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 결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오면 그 결혼언약은 메시아와 그의 신부에 대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언약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그러면 이 언약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담 또는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고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에덴동산을 돌보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실제로 그것이 언약이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어난 일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하여 언급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저는 늘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

무 멀리 나아가 아담과의 언약에 대한 가정을 과도하게 하여 거기로부터 어떤 생각을 추론해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까지만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아의 언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 나타나는 곳은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노아를 통하여 온 만물과 더불어 체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에 다룬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땅에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엄격하게 시비를 가린다면 모든 만물은, 모든 인간과 함께 멸절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본래 의도하신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부르셔서 처음 계획된 대로 그 프로젝트를 재개하셨습니다. 그래

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셔서 땅 위에 사는 천하만민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홍수로 멸절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 시려고 무지개를 구름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사가 자기 활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활모양의 것으로서 창세기 9장에서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피조물과 함께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실함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그 후로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언약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입니다.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창세기 22장에서 갱신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 장의 앞부분에서 아브람은 땅과 가족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약속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너에게 자녀 하나만을 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할 때 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을 볼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언약의 한쪽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지 도덕적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점은 이 언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자신이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이 체결되는 방식은 좀 특이한 고대의 의식이었습

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의 세계의 의식으로서, 언약의 체결자가 고대 근동에서 희생 짐승을 잡아 죽이고 둘로 갈라서 쪼갠 후에 그 짐승의 쪼개진 사체 조각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져도 좋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맺은 언약에서만 하나님은 친히 짐승들의 쪼개진 사체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전체 본문을 알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가족을 줄 것이며, 그를 많은 사람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가족을 넘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언약은 갱신되었고 그 결과 할례라는 표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한번 더 갱신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을 건지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그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살던 때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토라)을 주셨고 그 토라, 즉 율법은 십계명으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율법 전체가 포함됩니다. **율법은 언약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율법이 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너희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셔서 사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이후로 전개되는 구약성경의 모든 일에서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윗 언약

그 후에 우리가 언약에 대하여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자손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그가 낳은 어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에도 인용됩니다. 특히 시편 89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그립니다: ‘나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그의 자손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는 내 앞에서 영원하여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시편 89은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그 내용이 바뀝니다. 즉, 다윗과 맺은 언약을 찬송하다가 그 시의

중간에 가면,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언약을 폐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다윗 계보의 왕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자들과 언약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언약은 깨뜨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깨질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소개됩니다. 호세아서에는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치 젊은 남자가 자기 신부를 인도하여 그녀에게 사랑의 약속을 하고 자신의 신부로 삼은 것처럼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는 그 이전의 언약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결혼언약을 맺으신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조를 버렸으므로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후로 모든 일을 겪을 것이다.’ 포로생활은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처절한 이

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깨뜨리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갱신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은 옛 언약과 같이 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므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앎을 것이다.’

이사야 5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화의 언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본문에도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에스겔 34장과 다른 곳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수고한 일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사야 52장과 5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화의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로 와서 마시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이 말씀은 말하자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야훼의 자비로운 임재와 사랑과 풍성한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신약성경에서 인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가시든지 그런 마음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든지 비유로 가르치실 때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충실히 이루실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시는 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입니다. 그 모습은 이 젊은 유대인 예언자가 두루 다니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로 그 모습이며, 병자를 치료하시고, 슬기롭게 하지만 도전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

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은밀하게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그 밖의 모든 비유들입니다. 또한 두 아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에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먼 길로 나갔고 다른 아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정점은 예수께서 가까운 친구들을 데리시고 나가셨을 때입니다. 바로 그 밤에 주님은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나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 이 위대한 주제의 출전은 출애굽기와 예레미야입니다. 더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에 이르며, 어쩌면 아담의 메아리가 그 뒤에서 울릴 지도 모릅니다.

언약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설

신약성경은 바로 이 핵심으로부터 세워집니다. 그 핵심은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약속과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것은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신자에게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언약 신학에 대하여 설명한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본문도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사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충실하게 행하시며,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울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우리는 되돌아보고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것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

인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가 그 언약의 성취를 아직 볼 수 없을지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신약 성경의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들은 서로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화합과 평화와 형제애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일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 힘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라는 가족과 개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들이 맺은 언약과 교회의 언약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됩니다. 피조물에 대한 신실하심,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창세기에서 시작한 모든 이야기는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항상 그러하셨듯이 늘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신학입니다.

〈끝〉.

톰 라이트와 함께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10

떡 - 하나님의 임재

영상: https://youtu.be/_bg6p7eY8YQ?feature=shared

주요 내용: 성경에 나오는 누룩과 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성찬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관하여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떤 주제를 보여주며 성경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들은 이 이미지들을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미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에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본문을 아무런 설명 없이 교회에서 낭독한다면 그것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틀림없이 제자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사실 제자들은 누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유월절 이후로 그 때는 과거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위에서 건지셨을 때인데요. 유월절 식사의 특징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떡은 급하게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집트를 서둘러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룩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것의 특성을 희석시키는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룩은 떡을 다른 모습으로 만듭니다. 누룩은 그 이후로 비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

니다. 사람들은 누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진짜가 있다고 할 때 누룩을 더하면 그것은 어떻게든 망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을 보면, ‘주님이 떡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잖아!’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기 조금 전에 예수께서는 떡과 구운 생선을 많이 불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예수께서는 그 일을 행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과 8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은 굶주렸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매우 적은 양이었는데 많은 양으로 불어나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의미하는 것

그러면 예수께서 누룩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헤롯 안티파스를 진짜 왕으로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

다. 예수께서는 떡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와 구원자로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퇴색되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이라고 유대인의 은유로는 표현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의 조력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헤롯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누룩 없는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일로부터 바로 다른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그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메시

아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결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장차 올 왕이심으로 제자들은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메시아적 승리와 영광을 향한 그분의 길은 이내 매우 역설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떡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더 길게 묘사되었는데 그 내용은 예수께서 군중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때는 예수께서 군중에게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뒤의 일입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 6장 이야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일이 일어난 후 즉시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후로 무리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내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진짜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진짜 떡이며 진짜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그

렇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기서 떡의 이미지는 단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며 주님이 장차 하실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의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만나와 같지만 그 형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는 으레 그 약속을 성만찬이라는 표현으로 가르쳤습니다. 떡과 포도주라는 표현은 매우 강렬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강렬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자신을 주신다는 생각은 이교도의 신앙에 나타납니다. 이교도들은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에게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굶주린 신의 모습입니다. 이교도들은 자기 신들에게 인간을 양식으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느 시편에서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내가 굶주린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50편 12절 말씀입니다. ‘언덕에 사는 모든 동물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나에게 별일이 아니다. 나는 너의 문을 두드리며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진짜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이다. 그가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만납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위로 올라 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어쩌면 도중에 그 분께 선물을 바쳐야 할 것이다.’ 반면에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양식으로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설병, 얼굴의 떡

이 진리를 찬양하는 구약성경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성막에 있습

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제사장이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그들은 두 덩이의 떡을 특별한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떡이었습니다. 그 떡은 옛날 성경에서는 진설병(Show Bread)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표현 방식으로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거기에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그 말의 의미는 ‘얼굴의 떡’(Bread of Face)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떡 덩이가 거기에 진열되었습니다.

성찬의 떡이 의미하는 것

제가 보기에 예수께서 자기 몸을 세상의 생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떡에 대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진설병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성막은 광야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계속되는 삶은 교회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먹는 성만찬의 떡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전달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굴의 떡이며 입재의 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자주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들으소서. 온 나의 주님. 저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옵나이다.’ 여기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떡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입니다. 그것은 가장 평범한 것으로서 인간의 양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비범한 것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곳은 떡을 떼는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톰 라이트와 함께 성경에서 이미지를 읽어내기

성경의 이미지 11

불 - 정결하게 하는 것

영상: <https://youtu.be/ZvM0ZcFUWzE?feature=shared>

주요 내용: 성경에서 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성령의 물은 무엇이고 심판의 불은 무엇일까요? 정결하게 하는 불이 사도 바울의 글과 베드로의 서신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톰 라이트가 설명합니다.

성경은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표현하는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이미지 각각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큰 이야기에 연결시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읽어야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보낸 몇몇 사람들의 인사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헤롯 안티파스가 진정한 메시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적대시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께 대해 가졌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공개적으로 설교할 때, 즉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분이 성령과 불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이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문둥병자와 저는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고치러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훨씬 더 극적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장차 올 엘리야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칭찬으로 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뒤에 오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하늘로서 내려오는 불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은 불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태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 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였을까요?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불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엘리야라는 인물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은 엘리야가 반역하는 이스라엘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여호와와 편에 선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알 신의 선지자들입니다. 바알은 이교도의 신으로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 왕의 시절에 그 신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들이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싸움에 대하여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려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워달라고 하자.”

바알의 제사장들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는 도랑에 물을 가득 붓고 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내려 제물을 태우고 물을 핏듯이 말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면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산, 곧 호렙산이나 시내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엘리야는 급하고 강한 바람을 들으며 강력한 불도 보았으며 지진도 일어났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런 강력한 횃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극적인 일이나 외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는 해야 할 새로운 일이 생겼고, 그는 돌아가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하늘로 올려졌고 불말과 불마차가 그를 실어갔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

엘리야는 것처럼 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신약성경에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언급할 때 종종 불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주제는 구약성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특히 심판의 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불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그 모습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좌정하셔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 결과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은 경건치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소멸할 것이므로, 경건하고 합당한 것은 불로 단련한 귀한 보석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더욱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반석을 부수는 망치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단지 제안을 제시하시거나 논평을 하심으로 현안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치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불처럼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 그림은 신약성서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것은 적절한 경고입니다.

오순절의 불,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분노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 내고 짜증을 부리면서 불같이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시며,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보다 못한 것은 모두 깨끗이 없애 버리시고 불태우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각 사람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위대한 장면인 오순절의 장면은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빛나는 광채로 나타나 성막에 거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여러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처럼 그 자리에는 바람이 있었고 불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례 요한이 자신도 모르게 말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장차 오실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그리스도인 소명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바람과 불을 불리일으킬 때, 바람이 집안의 모든 것을 어지럽게 흩어버릴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불

불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일이 최후의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심판의 불, 즉 어떤 사람의 사역에 있어서 옳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터(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불이 지나가면 나무와 풀

과 짙은 다 타버릴 것이나 말라기 3장과 같이 금과 은과 보석은 연단되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 어떤 사람들인지 그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불 심판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창조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부패하고 훼손된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서방 교회의 오랜 중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고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명령을 어길 때, 그것도 어떤 것이든 한번만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의 선하심과 그 선한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므로,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을 부패시키고 부식시키고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 없으며, 특히 그분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인 인간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자신의 새로운 세계에 머물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것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의 끝 부분에서 우리가 얻는 그림입니다.

불에 대한 난해 구절 해설

그렇다면 불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새 창조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결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해버립니다. 그런 것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구절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과 비슷합니다. 그 본문에서 베드로서신은 장차 올 불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어 본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것은 매우 난해한 단어이며, 그 본문에 대하여 사본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주제와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본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래된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옮겼습니다.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창조가 무에서 나온 새 창조가 아니라 옛 창조에서

나온 새 창조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헬라어 단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불이 그 일을 마치면 하나님의 세계의 실체, 그것의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나며 그리고 전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오래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물론, 초대 교부들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에 대해 논쟁했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화형을 당하여 그들의 몸과 뼈와 그것들을 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당신들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겠지요.’ 그러나 2세기 말과 3세기 초 이레나이우스(Irenaeus), 키프ريان(Cyprian), 테르툴리아누스(Tertulian) 같은 교사들, 그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곤경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옛 창조의 폐허에서

도 새 창조를 창조하시기 위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구절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흥미롭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텍스트 표면에 있는 작은 주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선한 까닭은 심판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심판하기 때문이며, 처리되어야 할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다음 강연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끝〉.